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경상북도 포항시
- 제일지역아동센터



2017. 7

조*영

배움지기의 나이대는 7살부터 중3까지 다양했기 때문에 학습 봉사보다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비누 만들기, 화분 만들기, 요리 실습 등 사전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멘티들이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에 뿌듯했다. 고학년들에게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와준 아이들에게 고맙다. 처음엔 말썽을 피우던 아이들도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준비물도 꼬박꼬박 챙겨오는 모습에 감동했다. 5일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 하루만 더 있으라며 우리들의 옷자락을 잡던 친구들과 서울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아픈거린다. 이번 봉사활동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재능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색다른 경험과 배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또한 대학 동기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책임감을 기르고 단합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봉사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 이화여대 사회봉사팀 관계자분들과 제일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다.

초등학생을 대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잘 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되었다. 그리고 첫날 아이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짧은 만남이더라도 좋은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비록 매일 센터에서 봉사가 끝나고 봉사단원들과 같이 저녁을 먹을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뿌듯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소감문에 아이들이 어떤 활동이 재미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줘서 고맙웠다. 4박5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아이들이 다음에 또 와달라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해보고 싶다.

박*현

방학때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동기들과 이화 봉사단에 지원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나중에는 4박 5일이라는 기간동안 어떻게 해야할지 하는 막막함이 컸던 것 같다. 한번도 아이들과 부딪히며 생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것에 흥미를 느낄지도 몰랐다. 포항에 도착해서 만난 아이들은 예상대로 에너지가 넘쳐 처음에는 감당하기에 약간은 힘들었다. 하지만 봉사 기간동안 아이들다운 순수함을 볼 수 있었고 오히려 그런 마음들에 내가 더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특히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들에 열심히 참여해주는 모습들을 볼 때는 뿌듯함을 느꼈다. 봉사활동은 힘들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혹시라도 다음 방학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이화봉사단에 참여해보고 싶다.

봉사를 가기 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프로그램을 재미 없어도 어찌지 하는 걱정을 했다. 하지만 4박 5일 동안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아이들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 또한 아이들과 처음보다 친해지고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마지막에 아이들의 소감을 읽어보는데 다시 하고 싶다는 말을 적은 아이들이 꽤 있었다. 그리고 이별을 슬퍼하는 아이도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완벽하게 수업을 진행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헛된 봉사를 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4박5일간 아이들에게 가르치러 갔지만 나 또한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이번 봉사가 두 번째 이화봉사단이었지만 봉사가 끝나니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이화봉사단은 의미있는 활동인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할 것이다.

윤*혜

직접 팀을 꾸리고 프로그램을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봉사를 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끝내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을 처음엔 아이들을 통제하고 다루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함께 어울려 다른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봉사를 하면서 힘들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아이들의 웃는 모습과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말썽을 피웠던 두 명이 준비물을 챙겨 오고 마지막엔 재미있었다고 해준 것이 기억에 남았다.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팀원들끼리 서로 도우며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어 좋았다. 또한 아이들과 소통하며 재미있고 알차게 한 주를 보내면서 그들의 진심과 순수한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긴 것 같아 좋았다.

팀을 만드는 것부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까지 직접 진행하다보니 과연 진행이 잘 될지 걱정도 많았고, 수요처를 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끼리도 서로 도와가며 활동하였고, 도움주신 센터 선생님들과 고등학교 봉사자들 덕분에 12개의 모든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어 뿌듯하고 아직까지 여운이 남는다. 4박 5일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아쉬워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그동안 프로그램을 준비해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그 모습을 보며 기회가 되면 다음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찾아가고 싶었다.